

한국 미국학의 개척사를 증명하다*

권 용 립

경성대학교

A Life-long Record of an American Studies Pathfinder in South Korea

Gweon, Yong Lib

Kyungseong University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은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침투를 견제한 중국이 주선했다. 조선만큼은 끝까지 사대질서로 묶어두려 했던 중국은 조미수호조약을 ‘중국의 속방’과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 때문에 조선이 서구와 처음으로 맺은 이 조약은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사대질서와 서구의 국제법 질서가 충돌한 기형적 조약이었다. 더구나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미국이 조선에서 철수함으로써 조선과 미국의 짧은 만남은 끝났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한미관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한 1945년부터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거쳐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약 8년에 걸쳐 그 틀이 짜였다.

예(禮)의 전범에 기초한 사대질서를 양육강식의 근대적 국제질서로 바꾼 일본의 식민체제를 다시 미국과의 동맹체제로 전환시킨 시대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10년이라면 이 시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보는 미국 연구

* 이보형, 『우암사론(상, 하)』, 『우암여화』, (소나무: 2013)에 대한 서평.

(American Studies)도 짝을 띄워야 마땅한 시기였다. 그러나 냉전과 한국전쟁의 이중 굴레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했던 당시 상황에서 ‘피를 나눈 이웃’으로 바뀐 미국을 연구 대상으로 멀찌감치 놓고 볼 여유는 없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초보적 관심은 다행히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삼든 역사에 대한 연구가 정치, 외교 연구의 기초라는 점에서 미국의 정치나 외교보다 미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먼저 생긴 것은 당연했다. 그 중심에 1950년대부터 한국의 미국사 연구를 개척하고 주도해온 우암 이보형 선생이 있다. 이보형 선생은 1960년대부터는 서양사로부터 미국사를 분리시켜 미국사학회를 창립했고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한국 미국사 연구의 중심점이 되었다. 1950년대부터 이보형 선생이 써온 논문과 칼럼, 단상을 모아서 펴낸 『우암사론』(상, 하)을 개인의 문집 이전에 한국 미국사 연구의 궤적을 담은 책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암사론(상)』은 다섯 쪽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미국사 연구자로서의 개인사를 회고한 대담들로 짜여 있고 제2부는 비어드와 터너 등 20세기 초 미국 역사학을 이끈 혁신사학자와 20세기 중반의 대표적 미국사학자 아서 슐레신저 2세의 사상과 학설을 소개한 1950년대-1960년대의 논문, 그리고 미국 역사의 역사와 미국 역사 용어의 번역에 관한 1980년대 이후의 글로 짜여있다. 제3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미국 독립혁명에 관해 쓴 논문 및 강연록으로 구성되었고 제4부는 미국 노예제를 다룬 1960-1980년대의 글들을 모아 놓았다. 제5부 ‘사론여적(史論餘滴)’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사상계와 월간중앙 등 시사 잡지에 기고한 글을 모아 놓았다.

『우암사론(하)』는 일곱 쪽지다. 제1부는 조선 말기의 한미관계론부터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3.1운동을 논한 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2부는 워싱턴, 제퍼슨, 링컨, 윌슨, F. 루즈벨트 등 미국 주요 대통령들을 논한 글을 모아놓았고, 제3부는 미국 국민의 가치관에 관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미국의 극동정책과 제국주의 관련 논문은 제4부로 편성되었고 1968-1973년간 한국 서양사학계의 현황에 관해 역사학보에 게재한 논평들은 제5부, 1952년부터 반세기에 걸쳐 선생이 쓰신 서평과 서평논문을 모은 제6부,

그리고 한국역사학회와 한국아메리카학회를 회고한 몇 편의 글로 구성된 마지막 제7부가 그 뒤를 잇는다.

『우암여화』는 신문 칼럼 등 기고 단문들을 한 데 모은 책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정치, 한미관계, 미국의 정치사회문화를 주로 한 계몽적 글들이고 다른 하나는 야구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삶과 학문적 궤적이 모두 담긴 책에 ‘서평’이라는 말은 썩 어울리지 않는다. 이 글은 『우암사론』에 대한 서평이라기보다 역사학의 언저리에서 미국을 조금씩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30여년간 많은 인문학도와 사회과학도들이 미국 유학을 했고 1970년대부터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한국, 제3세계, 공산권을 전공한 사람만 많았지 미국 가서 미국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한미관계의 비대칭성이 한국 유학생들마저 미국학계의 우선 관심 순위를 따르게 되는 학문 전파의 비대칭 구조로 연역된 셈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나라를 가장 관심 없는 대상으로 제쳐놓은 역설이 일상화했고 아무도 이것을 역설로 여기지 않았다. 은유하자면 『우암사론』은 이 역설의 시대를 조용히 비껴 걸어온 어느 미국 연구자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미국 역사보다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조율해온 미국 외교의 속내가 당장 궁금했던 국제정치 전공 대학원생 시절 내가 미국과 관련해서 처음 읽은 국내 서적이 이보형 선생의 『미국사개설』이었다. 개설서이니만큼 당시 막 읽기 시작한 흡스테터, 로씨터, 아서 슐레신저 2세의 글처럼 통쾌한 통찰을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개설서들과 달리 묘한 여운을 풍기면서 미국 주류사학의 정설을 담담하게 정리한 이 책을 통해 미국을 들여다 볼 지도와 이정표를 막연하게나마 그릴 수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미국사개설』에서 느꼈던 여운과 담담함이 우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우암사론』과 『우암여화』를 읽고 깨달았다.

『우암사론』을 통해 30년 전 『미국사개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는 논문이든 수필이든 글에는 사람의 체취가 스민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되새긴다. 미

국사학사, 독립혁명, 흑인문제, 한미관계 등 『우암사론』에 실린 글들은 무엇보다 논쟁적이지 않다. 미국 역사학을 소개하고 계몽하는 선구자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의 논쟁 줄기를 파악하고 소개하는 일이 물론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만 편애하는 논쟁적 계몽 또한 적지 않은 지식 전파의 현실을 생각하면 논쟁을 가급적 비껴 미국 역사학의 현황과 추이를 있는 그대로 충실히 소개하는 것 자체도 학문적 중용이다. 『우암사론』에 실린 수 십 년 전의 논문을 지금 읽어도 새로운 것은 이 중용의 미덕이 가진 힘 덕분일 것이다.

『우암사론』과 『우암여화』는 우리나라 미국사 연구의 궤적뿐만 아니라 글이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잘 보여준다. 되풀이하지만 『우암사론』과 『우암여화』에서 드러나는 선생의 철학 즉 미국 연구자인 동시에 일상인으로서 선생을 이끈 화두는 중용이다. 하나 덧붙인다면 중용의 휴머니즘이다. 대담을 통해 회고한 미국사 연구의 초기 궤적에서, 하워드 진에 대한 평가에서, 흑인 문제 연구를 시작한 배경을 회고한 대목 등 사론 곳곳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사와 연관 없는 야구 칼럼과 단상, 강연록에도 중용의 자세와 겸허한 휴머니즘이 배여 있다. 그래서 글의 맵시도 우리네 산처럼 담백하고 저절로 흐르는 옛 강처럼 꾸밈이 없다. 교조적 입장을 학문적 양심으로 오해하고 감각적으로 꾸민 글을 잘 쓴 글로 착각하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우암사론』과 『우암여화』는 산업화된 글쓰기에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물들었는지를 새삼 일깨우는 책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우암사론』은 미국을 ‘혈맹’으로 은유하면서도 정작 그 혈맹에 대해 무지했던 불모의 시대를 먼저 걸어온 한 미국 연구자의 진솔한 기록인 동시에 한국 미국사 연구의 여정을 담은 우리 모두의 기록이다. 선생의 글과 삶의 궤적을 한국의 미국 연구자와 지식 대중이 공유하게 만들어 준 『우암사론』과 『우암여화』의 출간을 반기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나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한 ‘덕상’과 ‘운’과 ‘사려’가 작동하는 현장을 극적으로 보는 게 재미있어서 국내외 야구 중계를 가끔 본다. 그런데 해설이 듣기 싫어 TV 볼륨은 끄고 음악을 들으며 볼 때가 많다. 『우암여화』에

<야구와 해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한국 야구의 해설 수준을 짐작하게 꼬집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내심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 『우암여화』에는 음악과 오디오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나도 음악 좀 더 잘 들겠다고 오디오시스템을 귀에 맞추다가 귀를 거기에 맞추느라 한동안 애쓴 적이 있어 무척 공감할 수 있었다.

- * 1997년의 졸저 『미국대외정책사』에 대한 과분한 서평을 『우암사론』에서 읽고 뒤늦게나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